

동포 여러분, 우리 서로 칭찬합시다!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1년 12월 10일(금)
--(음력 11월 7일)--
Пятница
10 декабря 2021г.
№ 47 (11964)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12 ДЕКАБРЯ
ДЕНЬ
КОНСТИТУЦИ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12월 12일은 러시아 연방 헌법 제정의 날이다.

친애하는 사할린과 쿠릴 주민 여러분!

러시아 연방 헌법 제정의 날을 축하드립니다!

이러한 국가의 근본적인 법을 토대로 우리는 삶과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채택한 헌법 개정안은 매우 중요합니다.

개정안에는 국민의 새로운 사회적 보장을 강화했고, 국가의 이익과 영토적 가치를 수호하며, 우리 고유의 정신적, 도덕적 가치를 고수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사할린 주민들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역사적 정의 보존과 국경 불가침은 쿠릴 열도의 영유권에 대한 문제에 중지를 찍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앞으로 지역 발전에 확신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우선적 과제 중에는 의료, 공공주택과 교통 분야의 현대화와 주거 구역의 정비 및 섬들에서 생태적 환경 개선과 새로운 투자 계획의 추진이 있습니다.

이 모두가 사할린 주민들의 편안한 생활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고, 경제를 강화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헌법 제정의 날을 맞아 여러분 모두에게 강건함과 번영과 만사의 형통을 기원합니다.

사할린 주지사 알레리 리마렌코

사할린에서 신규 연어 양식장 사업 시작

네벨스크 지역의 신규 연어 양식업체가 기획량 방류로 연간 2천7백만 마리의 연어 치어를 생산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첫 연어 알 250만 개가 부화를 위해 양식장에 들어갔고, 신규 양식장 개발로 10개의 일자리도 생겼다. 새로운 양식장은 사할린의 서남부 네벨스크 지역의 오네누시 강가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는 '카니프' 수산업체의 투자 기획으로 실행되었다. 투자액은 총 1억5천만 루블 정도다.

양식장 건설은 내년에 완공될 예정이며 2개 인큐베이터가 도입된 가운데 현대식 공장에는 '복스'와 '아트킨스' 유형의 고효율적 인큐베이터를 갖추어 4천 5백만 개의 알을 부화시킬 수 있게 된다.

양식장 면적은 2천㎡로 양식 기간에 3천만 마리의 치어를 가둘 수 있다. 또한 공장 구역에 치어들의 적합한 환경 조성을 위해 350㎡의 여장도 건설된다. 양식장과 여장의 규모로 연간 2천7백만 마리의 연어 치어가 확보될 전망이다.

양식장이 지속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전기 공급망과 비상대비 발전기도 설치됐다.

2022년에는 공장의 3단계를 실시할 계획이며, 관수 자동 공급시설을 설치하고, 구역을 정비할 계획이다. 현재 사할린주에 68개의 수산업체가 태평양 연어 생산의 양식업을 운영하는 가운데 매년 이들 양식장에서 10억 마리의 어린 태평양 연어들이 지역 강으로 방류되고 있다.

사할린주, 식품 안전 강화

아니와 지역의 트로이츠코예 마을에서 '그린 아그로 사할린'의 최신 유제품 가공 공장이 시험 가동되었다. 새로운 생산은 '유즈나야' 선도 사회경제 개발 구역의 구성요소 중 하나다.

'그린 아그로 사할린'에서 생산되는 생우유의 대부분은 유즈노사할린스크, 흄스크, 포로나이스크의 가공업체들에서 가공된다. 하지만 상황이 바뀌어 얼마 전 본 농장에서 시험적으로 자체 우유 공장을 가동시켰다. 현재 '그린 아그로 사할린' 공장은 자체 가공한 저온살균 우유, 종이팩 속 케피르, 플라스틱 통 속 스메타나를 출시했다. 이어서 다양한 첨가물이 들어간 요구르트도 신제품으로 출시할 예정이다. 치즈 작업장에서는 경화 및 반경화 치즈도 생산할 계획인 가운데 내년 1월에는 시험 출시된다.

유제품 공장의 가동으로 145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단신

시민 10명, 사할린주 형성 75주년 기념훈장 수여

12월 9일은 러시아에서 조국 영웅들의 날을 기념한다. 이날 유즈노사할린스크시 민속창작센터에서 대조국전쟁 참전자, 사할린주 명예 시민, 주요 인사들이 모인 가운데 기념행사가 펼쳐졌다. 사할린 주지사 알레리 리마렌코는 대조국전쟁 참전자인 제카브리나 푸쉬카료와에게 축하하고, 시민 10명에게 사할린주 형성 75주년 기념훈장을 수여했다. 그중 사할린동포들도 있는데 코르사코브 중앙구역병원의 외과과장 이 알렉산드르, 네벨스크 구역의 명예 시민인 박 블라디미르, 코르사코브 스포츠학교의 사범인 이 블라지미르이다.

오미크론으로 인해, PCR 검사 유효기간 단축

소비자보호감독청의 법령에 따라 러시아 피씨알(PCR) 검사 음성 판정의 유효기간이 72시간에서 48시간으로 단축됐다.

정부는 코로나 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의 확산세와 관련하여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러시아는 11월 28일부로 남아프리카 공화국, 탄자니아, 홍콩, 보츠와나, 레소토, 나미비아, 짐바브웨, 모잠비크, 마다가스카르, 에스와티니 국가에서 오는 승객의 입국을 제한했다. 12월 2일(수)부터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비롯한 인근 국가에서 러시아로 입국하는 모든 승객들은 2주간 격리시설로 이송된다.

러시아 소비자보호감독청은 12월 6일(월) 남아프리카에서 입국한 2명의 승객에게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되었다고 보고했다.

10월, 사할린에서 코로나19로 인해 60명 사망

러시아통계청이 정기적으로 월별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번에 전문가들은 10월의 사망자수에 주목했다. 10월에 사할린 주민 60명이 사망한 가운데 이들에게서 코로나19가 확진되어 60명 모두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으로 판정됐다.

사할린주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는 지난 9월에 75명, 8월에 96명이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할린과 쿠릴 열도에서 새해 준비 한창

사할린주 도시와 마을의 공공장소는 새해맞이 분위기로 장식되고 있다.

명절 행사장도 갖추어지고, 문화회관들은 12월 6일부터 새해맞이 공연을 준비하기에 한창이다. 도심의 레닌 광장에는 울카와 분수대 조명 장식을 했고, 시 공원도 조명등으로 장식했으며, 음악분수대는 음악 조명터널로 바뀔 준비를 하고 새해를 맞이할 시민들을 기다리고 있다.

새고려신문

2022년 상반기 신문 구독 계속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2년 상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이 계속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6개월 구독료는 557루블리 04코페이카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ПП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 수 있습니다. (본사 편집부)



고려인들을 위해 노력하는 채예진 대표: '기자는 영원히 기자다.'

필자는 카자흐스탄 출신, 고려인 4세 채예진(채 예브게니야.1972년생) 씨를 1994년 6월에 처음 만났다. 우리는 한국 프레스센터의 초청으로 연세대 한국어학당에서 어학연수를 받았다. 그 당시 그녀는 러시아 및 카자흐 국립 종합대학 신문방송과를 막 졸업했다. 6개월 연수프로그램 동안 우리는 많이 친해졌다. 그후로 27년이 지났고 서로 연락을 자주하는 하지 않았지만 기회가 생길 때마다 만났다. 주로 한국에서 만났고, 사할린에도 여러 번 방문한 적이 있었다. 현재 한국과 카자흐스탄에서 고려인을 위해 활동하는 주요 인물이라고 본다. 필자는 그에 대한 뉴스를 접할 때마다 '멋지다'라는 생각이 든다.

채예진은 연세대에서 6개월 어학연수를 받은 후 카자흐스탄TV 라디오 방송공사의 우리말 라디오 방송국에 입사했다. 사실 대학 신문방송학과에서 공부할 때 한국어도 배웠다. 그래서 한민족 관련 주제를 다루는 기자로 활동할 것이라곤 걸 알고 있었다. 라디오방송국에 있다가 TV 방송국으로 이직하게 되어서 그 쪽 분야에서 기자, 아나운서, PD까지 역임했다. 12년 전에는 한국에 와서 무역 회사에서 팀장으로 일을 시작했는데 얼마 안 지나 해외사업부 본부장을 맡게 되었다. 채예진 본부장은 추진력이 대단하고 그가 러시아 가스프롬과 3년간 협정계약, 그리고 3년 더 연장 계약을 따냈다는 것이 이걸 잘 증명하고 있다. 2014년에 그는 카자흐스탄 알마티시에서 현지 법인을 설립

해서 그 회사의 대표로 있다. 그래서 '본부장님'보다는 '이사님'이란 말을 더 자주 듣는다.

이렇게 보면 실력있는 매니저로 인정을 받은 채예진 본부장은 회사에서만 아니라 널리 여러 활동을 하고 있다. 한때 전북대 초빙교수를 지냈고, 전북대의 국제교류에 큰 공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한국어와 한민족 문화 보급에 많은 일을 해왔다. 카자흐스탄 외국어대학에서 열리는 말하기 대회 의 꾸준한 후원자이기도 하다. 이 정보는 그녀의 sns를 통해 알게 되었다. 채예진 씨는 자량을 하지 않는 스타일이다. 그러나 쑥스러워 하지도 않는 스타일이며, 언제나 자신감이 있고, 강직한 사람이다.

현재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여 정착하는 고려인들의 미래가 걱정되어 2-3년 전부터 채예진 씨는 대한고려인협회 부회장으로서 본격적으로 이들을 위한 활동을 시작했다.

"아시아피 구 소련의 붕괴 이후 한국으로 들어가는 고려인들의 수가 급속히 증가하였다. 최근 20-30년 동안 국내로 귀환한 고려인 동포의 수는 약 10만 명이다. 어떻게 보면 CIS동포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대한고려인 협회는 2018년에 창립되었고 2020년에 등록되었다. 노승달 회장은 현재 대한고려인협회를 이끌고 있으며 아직은 시작하는 단계이지만 좋은 조직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안타깝지만 CIS동포들이 중국



동포와 달리 한국어를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으며, 문화적 사고방식의 차이로 어려움도 많다. 이들에게는 주로 현장 사고, 교육 문제, 부동산 계약과 해제, 계좌 개설, 인권 및 노동부와 관련된 문제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으며, 비자 H-2, F-4, F-1, F-2의 차이점에 따른 문제도 많이 발생한다.

대한고려인협회에서 1대1로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없지만 현재 처한 상황과 고려인 동포와 관련된 정책적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대안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CIS국가 동포의 국내 귀환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한국 사회에서 고려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며 고려인을 여전히 이주노동자, 재외 동포가 아니라 방문 외국인으로 여기는 사람 많다."고 채예진 씨가 대한고려인 협회 사업을 소개했다.

그에 따르면 대한고려인협회 지부가 있는 곳은 안산, 서울, 부산, 단진,

천안, 부산, 인천이다. 협회는 위원회가 여러 개 있지만 제일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위원회는 미디어 위원회(카자흐스탄 출신 한진호 위원장), 문화교육위원회(사할린 출신 정영순 위원장)이다. 협회 소식을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 궁금한 점은 메신저로 보낼 수가 있다.

채예진 부회장은 협회 외에 여러 사회 활동을 하고 있다. 그는 현재 최재형 기념사업회의 이사, 흥분도장군기념사업회에서도 이사를 맡고 있다.

기자 출신인 그는 '전직 기자는 없다. 기자는 영원히 기자'라고 생각하고 있다. 한국에 많은 고려인들이 살다 보니 예브게니야는 이들과 이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기 위해서 작년에 유튜브에서 "SARAM 채널"을 개설하기로 결심했고 같은 생각을 갖고 현재 한국 내 거주하는 언론 출신의 고려인 4명(채예진(채 예브게니야), 한진호(한 블라디미르), 최용일(최 블라디슬라브), 이한수(이 드미트리)과 함께 시작하게 되었다. 한국에 와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살면서 성공한 사람들의 인생 이야기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한국 사회에 적응과 정착을 돕기 위해, 프로그램의 주인공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SARAM채널에서뿐만 아니라 CIS에 거주하는 고려인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다른 프로젝트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우리팀은 확대되었다. 작년엔 4명으로 시작했지만 지금 우리팀은 14명으로 구성되었다. 한국에 4명, 러시아 2명, 영국 1명, 카자흐스탄 7명이 있다."고 채예진 대표가 설명했다. 현재 그는 SARAM채널의 운영자 겸 기자, 피디, 나레이션, 그리고 아나운서까지 맡고 있다.

채널에 들어가보니 정말 사람 냄새가 나는 따뜻한 이야기가 가득한 채널이다.

사업, 사회활동, 기자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채예진 대표의 활동은 훌륭하다. 그를 오래전부터 지켜보았는데 그는 진심으로 항상 주위 사람들을 잘 챙겨주는 배려심 많은 친구다.

이번 12월 1일부터 9일까지 한국에서 펼쳐진 재외동포 초청연수 프로그램 참가자로 만나게 된 채예진 씨는 역시 멋있는 여성이었다. 드디어 그를 취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제 인생의 보물은 사람입니다. 살아오는 동안 만난 모든 사람은 제 운명에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가르쳤습니다. 제 삶의 원칙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고 끊임없이 앞으로 향하고, 무언가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사람이 자신의 운명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행복할지, 아닐지는 각자가 결정한다고 봅니다."라고 채예진 씨는 말한다. 필자는 한민족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활발하게 활동하는 채예진 대표를 응원한다.

(서울에서 배순신 기자)

이 모 저 모

자원봉사의 날, 사할린 우수 자원봉사자들에게 특별한 방식으로 축하

매년 12월 5일은 러시아에서 가장 좋은 날 중 하나인 자원봉사의 날로 기념한다. 이날 '등대' 아트센터에는 사할린주 18개 지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의 발전에 크게 기여를 한 우수 자원봉사자들이 모였다.

이번 대규모 국민적 자원봉사의 날은 지적 게임인 '퀴즈, 선물'이라는 특별한 형식으로 치르기로 했다.

이날 사할린주 청년사업청의 드미트리 스메칼로브 청장이 참가자들에게 환영사를 전하고, 해마다 청년사업청 팀은 국가 기념일을 축하하기 위해 다양한 형식들을 찾고 있다며 올해는 청년 자원봉사자, 자원봉사 단체장, 사할린주 정부 요원들에게 흥미로운 방식을 찾아냈다고 덧붙였다.

"우리는 3시간에 걸쳐 7라운드의 게임을 치렀다. 이 시간이 정말 마음에 들었고, 이에 참가자들에게 특별히 감사를 전하고 싶다.

올해 우리는 사할린주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수를 몇 배나 늘렸고, 4개의 자원봉사 운영센터를 열었으며, 마음과 정신의 부름에 따라 원하는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고, 또는 도움을 받거나, 누군가를 도울 수 있도록 자원봉사적 및 자발적 활동의 전반적 제반 구축을 조성하고 있다.

내년에는 4개의 자원봉사센터를 더 개설하고, 자원봉사자 수를 증가시킬 계획이다. 내가 알기로는 사할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들은 3만 5천 명이 넘는데 다른 누군가에게 정기적으로 도움을 주는 우수 봉사자는 절반 정도이다. 이들은 늘 헌혈에 앞장서고, 행사장에서 노인들에게 식품을 사다주거나, 이웃을 위해 눈을 치운다. 그 사람은 마음으로, 개인적 신념으로 일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어디에도 등록돼 있지 않으며, 그가 자원봉사자라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지만 그는 봉사한다."라고 드미트리 스메칼로브는 말했다.

이날 행사에 다양한 연령대의 자원봉사자들 160명 이상이 참석했다. 이들은 세상을 더 나은 세상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는 <세레브란니예(노인)> 자원봉사자, 의료 자원봉사자, 문화 자원봉사자, 환경보호 자원봉사자, 대규모 기획 자원봉사자들이었다.

День волонтера: лучших добровольцев Сахалина чествовали в необычном формате

Ежегодно 5 декабря отмечается один из самых добрых дней нашей страны — День добровольца (волонтера). В этот день в арт-резиденции «Маяк» собрались лучшие волонтеры из 18 районо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каждый из которых внес значительный вклад в развитие добровольческого движения в регионе. Большой национальный День волонтера решили провести в совершенно необычном формате — интеллектуальной игры «Квиз, плиз».

Всех участников поприветствовал руководитель Агентства по делам молодеж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Дмитрий Смекалов. Он отметил, что команда агентства каждый год ищет разные форматы для проведения национального праздника, добавив, что в этом году им удалось подобрать формат, который интересен как молодым волонтерам, руководителям волонтерских организаций, так и членам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 протяжении трех часов мы играли семь раундов, и отмечу, что я очень хорошо, душевно провел это время, за что отдельное спасибо участникам. В этом году мы в несколько раз увеличили количество волонтеров,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ных на территори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Мы открыли четыре волонтерских ресурсных центра и сегодня мы создаем уже целую инфраструктуру волонтерско-добровольче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направленной на то, чтобы каждый желающий по зову души, по зову сердца мог прийти и либо получить помощь, либо помочь кому-либо.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мы планируем открыть еще четыре центра, а также наращивать количество добровольцев. Моя

личная убежденность, что те чуть больше 35 тысяч человек, которые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ы на территории области, в лучшем случае лишь половина тех людей, которые на регулярной основе оказывают помощь кому-либо — когда человек постоянно сдает кровь, покупает, например, продукты бабушке по площадке, чистит снег соседям. То есть когда человек делает это от души, из своих личных убеждений. Он нигде не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 он никому не говорит, что он доброволец, но он это делает», — отметил Дмитрий Смекалов.

На мероприятии присутствовали более 160 волонтеров разных возрастов: «серебряные» волонтеры, волонтеры-медики, волонтеры культуры, волонтеры-экологи, волонтеры крупномасштабных проектов, показавшие на своем примере, как можно изменить мир к лучшему.

사할린 동물원 탄생일, 큰 파이와 춤으로 방문객들에게 행복을 선사

지난 일요일, 사할린 동물원이 28번째 생일을 맞아 600명 이상의 동물원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였다. 동물원 측에서는 방문객들을 위해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한 가운데 이른 아침에는 어린 참가자들이 '혹성 탈출' 그룹 게임으로 모험을 찾아 떠났고, 이때 상품 추첨을 위한 티켓 접수가 시작되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임인 '어몽 어스(Among Us)'의 인물이 등장해 기분을 한층 고조시켰는데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들은 플래시몹으로 유명한 히트곡들을 기억나게 하고, 멋진 춤을 선보였다.

축하일의 절정은 상품 추첨이었다. 가장 행운을 얻은 사람은 눈썰매와 튜브를 타고 동물원을 떠나거나, 다양한 가족 휴양센터, 스포츠 상점, 아쿠아 파크의 이용권을 받았다.

방문객 30명에게는 동물원 무료 이용권과 인형극장 입장권, 영화관 입장권이 주어졌다.

전과 같이 축하의 날은 차와 파이를 먹으며 마무리되었다.

(8면에 계속)

사할린 국립대, 한국어 말하기 대회 개최

사할린 국립대학교에서 전통적으로 사할린 지역 학생들과 대학생들 대상 한국어 말하기대회가 개최되었다.

올해 대회는 사할린 국립대학교 한국어 교육 3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열린 가운데 사할린국립대학교 어문·역사·동양학 대학, 사할린주 교육부, 주블라디보스토크 대한민국 총영사관 유즈노사할린스크 출장소의 주최로 진행되었다. 또한 처음으로 한국의 충청남도가 이번 대회 주최 협력으로 나섰다.

사할린주 교육부 아나스타시야 키르테와 장관은 "해마다 개최된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 약 500명이 참가했다. 대한민국 문화, 교육, 예술에 대한 사할린 청소년들의 관심이 계속 커지고 있다는 것은 강조할 만하다. 대회를 통해 신세대 한국어 교사들이 양성되어 우리 지역 학교에 임용되었다."며 환영사를 전했다.

유즈노사할린스크 영사출장소 과기동 소장은 대회 참가자들에게 지속적인 실력을 향상시켜 양국 우호관계 강화에 크게 기여하길 당부하며 "대회 참가자들이 불안과 긴장을 이겨내고 용기를 내어 한국어 지식 확장을 위한 방도를 찾을 목적으로 대회에 참가하게 된 데에 찬사를 보낸다."고 말했다.

사할린국립대학교 니콜라이 후르차크 부총장은 대회 협력자와 교사들의 부단함에 감사를 표하며 "우리 대학교에서 수년에 걸쳐 한국어 말하기 대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매년 참가자 수가 늘고 있으며, 언어 연구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는 대학생들과 유즈노사할린스크, 코르사코브, 아나와, 홈스크에서 학생 25명이 참가했다.

〈러시아 가족의 눈을 통해 본 사할린 한인의 삶〉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동양학 및 아프리카인'학과 2학년생인 알렉산드르 코발료브는 "대회 참가는 좋은 경험이고, 언어에 대한 지식을 완성시킨다."고 말했다.

아직 한국어 지식 수준이 낮은 학교 학생들은 이날 오광수 시인의 〈좋은 말을 하고 살면〉이라는 시를 외워서 낭독했다. 심사위원들은 모든 참가자들의 한국어 발음과 성량, 태도, 내용 이해, 질문 응답 등을 고려해 평가를 했다.

학생부 수상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위 - 이 안나(유즈노사할린스크시 제2호 김나지아, 7학년)
 - 2위 - 황 알비나(유즈노사할린스크시 제2호 김나지아, 6학년)
 - 3위 - 키릴 올킨(유즈노사할린스크시 동양김나지아, 6학년), 김 엘레오노라 (돌린스크 학교, 9학년)
- 한국어 지식 수준이 좀더 높은 대학생들과 고등학생들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위 - 나린스카야 안나(사할린 국립대학교 어문·역사·동양학 대학, 2학년) - 제목 : 〈음악부터 시작된 이야기〉
 - 2위 - 주 콘스탄틴(홈스크 제9호 중학교, 9학년) - 제목 : 〈우리 가족 삶 이야기〉
 - 3위 - 보로비에바 다리야 (사할린국립대학교 어문·역사·동양학 대학, 2학년) - 제목: 〈사할린 한인 여성 4세대〉

어문·역사·동양학 대학 임 엘비라 학장에 따르면 이번 말하기대회는 사할린국립대학교 한국어 전문가 양성 30주년을 기념하는 12월의 행사시리즈를 열었다고 했다. 또한 이날 오후 사할린국립대 측에서는 한국어와 한민족 문화 교육에 협력한 사할린주한인협회, '에트노스'예술학교, 주 미술박물관, 사할린한국교육원, 새고려신문사와 우리말 방송국 관계자들을 초청해 원탁 모임을 가졌고, 12월 10일



오광수

좋은 말을 하고 살면

말 한 마디가 당신입니다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사람이되고
아름다운 말을 하면 아름다운 사람이 됩니다...

말 한 마디가 당신의 생활입니다
힘한 말을 하는 생활은 힘할 수 밖에 없고
고운 말을 하는 생활은 고와집니다

말 한 마디가 당신의 이웃입니다
친절한 말을 하면 모두 친절한 이웃이 되고
거친 말을 하면 거북한 관계가 됩니다

말 한 마디가 당신의 미래입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면 아름다운 소망을 이루지만
부정적인 말을 하면 실패만 되풀이 됩니다

말 한 마디에 이제 당신이 달라집니다
예의바르며 겸손한 말은 존경을 받습니다
진실하며 자신있는 말은 신뢰를 받습니다

좋은 말을 하고 살면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금)에는 대학생 좌담회와 12월 17일(금)에는 기념 행사 마무리로 '한국 대중음악 축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우리 대학의 교수들은 박사 학위 논문도 성공적으로 발표했고 지속적으로 수준을 향상시키고 있다. 해마다 한국어 전공과 관련된 분야의 입학 경쟁률은 상당히 높다. 또한 최근 5년간 러시아 연방 타지역에서 학생들이 우리 대학으로 한국어를 공부하러 오고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 대학에 국제 교환 및 연수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이다."라고 임 엘비라 교수는 설명했다.

(사진: 사할린국립대 제공)

극동연방대학교, 제10회 국제 한국학 콘퍼런스 개최

지난 11월 5일부터 6일까지 2일간 극동연방 국립대학교 동양학 대학 국제 및 지역연구학과 주최, 한국국제교류재단의 후원으로 제10회 국제 한국학 콘퍼런스가 개최되었다.

대한민국 한국국제교류재단에서는 올해뿐만 아니라 2000년, 2004-2005년, 2010년, 2016-2020년에도 극동연방 대학교 국제 한국학 콘퍼런스 개최를 재정적으로 지원한 바 있다.

이번 학술회의에는 러시아의 극동연방대학교, 블라디보스토크 국립경제 및 서비스 대학교, 러시아연방 국방부 사관대학,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 예르미타지 미술관, 러시아 과학아카데미의 동양학연구소·극동연구소·러시아 역사연구소, 이르쿠츠크 국립대학교, 모스크바 국립대학교, 국립연구대학 고등경제학교, 노보시비르스크 국립공과대학교, 러시아 인문대학교, 러시아 민족우호대학교,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학교, 태평양 국립대학교, 우랄 연방대학교 외에도 국외 한국의 서경대학교를 비롯해 핀란드 헬싱키 대학교, 카자흐스탄 알리-파라비 국립대학교, 일본의 릿고대학교와 고쿠시칸 대학, 영국 리즈대학교 등 외국 교육기관의 대표들과 사회단체(극동아시아 군사연구기획 재단) 및 러시아, 한국, 일본, 영국의 독자적 연구자들이 참가했다.

국제학술회의는 '엠에스 팀(MS Teams) 플랫폼'을 통해 원격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학술회의 주제들은 〈한반도와 관련 국가들의 국제관계에서 중국의 역할〉, 〈한국 정치와 사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실제적 문제〉, 〈러·한 관계 및 경제협력〉, 〈한국의 자주권 주장 문제: 해방 초기와 3.1운동〉, 〈러시아 및 해외 한인 동

포〉, 〈20세기 한국 역사〉, 〈한국사: 근현대사〉, 〈한국의 역사와 문화〉, 〈한국 문학〉, 〈한국 어문학〉, 〈러시아 한국학의 차세대 동향〉 등 12개의 세부 세션으로 나누어 열린 토론을 벌였고, 세션과 별도로 남북한의 역사 왜곡과 민족주의 문제를 고찰했다.

학술회의에서는 총 48개 논문이 러시아어, 영어, 한국어로 발표되었다.

콘퍼런스 개막식에서는 극동연방대학교의 국제관계 부총장 베베. 파노바, 주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관의 백지민 부영사, 극동연방대 국제 및 지역연구학과 예베. 푸스토보이트 학장, 한국국제교류재단 모스크바 사무소 임철우 소장 등 내빈들이 참석자들에게 환영인사를 전했고, 또한 극동연방대 한국학과 교수이자 역사학 박사인 이고리 톨스토쿨라코브가 〈한국 자연의 다양한 모습과 밝혀진 바 (About the species diversity of Korean nature)〉에 대한 기조연설을 하였다.

회의에는 발표자와 귀빈을 비롯해 극동연방대학교의 다른 부서의 직원들, 한국학과 대학생들과 교직원, 및 교수 총 9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 참가자 모두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지속적으로 개최되는 한국을 주제로 하는 학술 콘퍼런스는 러시아 한국학 연구의 필수적이고 권위 있는 부분임을 강조하고, 극동연방대 국제 및 지역연구학과 한국학과 발전과 성공을 기원하며, 내년 가을에 열릴 제11회 한국학 국제 콘퍼런스에서 다시 만나자는 기대를 표명했다.

바딤 아쿨렌코, 극동연방대학교 역사학 박사, 한국학 교수
번역: 이 잔나, 블라디보스토크 국립 경제 및 서비스 대학교

재외동포재단, 내년도 예산 처음으로 700억 넘어 차세대 재외동포 대상 사업 확대, 재외동포 교육문화센터 건축비 확보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김성곤)의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8.6% 증가한 707억 76백만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재외동포재단 예산은 사상 처음으로 700억대에 진입했으며, 사업비 예산은 638억원으로 올해 보다 9.3% 증가했다.

차세대 인재 육성사업, 동포사회 숙원 해소, 동포사회 기록·역사 보존 사업 관련 예산이 중점 반영되는 등 동포사회 요구가 반영됐다.

재외동포사회 숙원사업으로 차세대 동포들의 정체성 교육을 비롯해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 거점 역할을 수행할 재외동포 교육문화센터(가칭) 건립을 위한 센터 건축비 72억, 차세대 재외동포 대상 사업 확대를 위한 예산 52억5천만원, 재외동포 아카이브 구축사업 2억5천만원이 확보됐다. 다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사업이 축소된 한글학교 운영비, 재일민단 지원, 고려인 동포 초청사업 예산이 일부 감액됐다.

김성곤 이사장은 "장기간의 코로나 팬데믹으로 동포사회에 많은 변화가 지속되고 있는데, 우리 재단은 이러한 변화에 맞는 신규사업을 꾸준히 추진하는 한편, 차세대 동포들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사업도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라면서, "한민족 정체성과 세계시민으로서 소양을 갖춘 우리 동포분들이 거주국에서 공공의료 활동도 활발하게 전개하여 우리나라의 국격을 올리는데 기여했으면 좋겠다."고 내년 사업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재외동포재단 제공)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В ДВФУ состоялась X Международная корееведческая конференция

5-6 ноября 2021 г. в Восточном институте – Школе региональных и международных исследований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федераль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состоялась X Международная корееведческая конференция. Предыдущие международные корееведческие конференции проходили в 2000, 2004, 2005, 2010, 2016, 2017, 2018, 2019 и 2020 г. Конференция была организована кафедрой корееведения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федераль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при финансовой поддержке Korea Foundation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В работе конференции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ряда российских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федераль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Владивосток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экономики и сервиса, Воен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Министерства обороны РФ,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Эрмитаж, Институт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РАН, Институт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РАН, Институт российской истории РАН, Иркут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Москов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Национальный 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ий университет Высшая школа экономики, Новосибир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технический университет, Россий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гуманитар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Российский университет дружбы народов, Санкт-Петербург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Тихоокеан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Уральский федераль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и зарубежных вузов (Университет Согён,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Университет Хельсинки, Финляндия; Казахский националь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имени Аль-Фараби, Казахстан; Университет Риккё, Япония; Университет Кокусикан, Япония; Университет Лидс, Великобритания), обще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Фонда «North-East Asian Military Studies Project»), а также независимые исследователи из Росси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Японии и Великобритании.

Работа конференции проводилась на заседаниях двенадцати секций: «Фактор Китая в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тношениях стран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Политика и социум Южной Кореи», «Актуальные проблемы КНДР», «Экономическ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и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ие отношения», «Issues in Korean Search for Sovereignty: With a Focus on the March First Movement and the Early Liberation Periods», «Корейская диаспора в России и за рубежом», «История Кореи в XX в.», «История Кореи: Новое время», «История и культура Кореи», «Литература Кореи», «Филология Кореи» и «Молодая волна российского корееведения». В рамках отдельной секции были рассмотрены проблемы искажения истории и национализма в РК и КНДР. Всего было заслушано 48 докладов на русском, английском и корейском языках.

На торжественной церемонии открытия конференции с приветственным словом к её участникам обратились проректор по международным отношениям ДВФУ В.В. Панова, вице-консул Генерального консуль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Пэк Чи Мин, директор ВИ-ШРМИ ДВФУ Е.В. Пустовойт и директор Московского офиса Korea Foundation Лим Чхор У. С пленарным докладом «О сколько нам открытий...» или О видовом разнообразии корейской природы» выступил профессор кафедры корееведения д.ист.н., доцент И.А. Толстокулаков.

В конференции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более 90 человек; это были не только докладчики или почётные гости мероприятия, но и преподаватели, сотрудники и студенты кафедры корееведения, коллеги из других подразделений ДВФУ.

Участники конференции единодушно отметили, что научные конференции по проблемам Кореи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являются неотъемлемой и авторитетной частью российского корееведения, пожелали успехов в развитии кафедры корееведения ВИ-ШРМИ ДВФУ и выразили желание встретиться вновь на XI Международной корееведческой конференции осенью 2022 года.

Вадим Акуленко В.С., к.и.н., ст. преподаватель кафедры корееведения ДВФУ

Конкурс на знание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прошёл в Сахгу

Традиционный конкурс на лучшее знание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среди школьников и студенто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остоялся в Сахалинском госуниверситете.

В этом году он прошёл в рамках празднования 30-летия корееведческ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в островном вузе. Организатором выступили Институт филологии, истории и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СахГУ, министерство образования област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я канцелярия Генерального консуль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г. Владивостоке. Также впервые в качестве соорганизатора отметились правительство провинции Чхунчхон-Намдо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За годы проведения конкурса в нём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более 500 человек, – подчеркнула на приветственной церемонии министр образова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настасия Киктева. – Отраднo отметить, что интерес сахалинской молодёжи к культуре, образованию, искусству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и продолжает возрастать. В рамках конкурса выросло новое поколение учителей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которые пришли в наши школы.

Консул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й канцелярии Генерального консуль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Квак Ги Дон призвал участников конкурса продолжать совершенствовать свои способности, внося тем самым большой вклад в укрепление друж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двух стран.

Участники конкурса заслуживают похвалы за то, что преодолели застенчивость и неуверенность и, набравшись смелости, принимают участие в конкурсе с целью найти инструменты для расширения знаний по корейскому языку, – считает консул.

Также приветствовал конкурсантов проректор СахГУ Николай Хурчак, выразив слова благодарности постоянным партнёрам и педагогам:

– Конкурс по корейскому языку проводится в стенах наше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уже много лет, и нам очень приятно, что количество участников с каждым годом увеличивается, интерес к изучению языка только возрастает, – сказал он.

Участниками конкурса стали студенты вузов и около 25 школьников из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Корсакова, Анивы и Холмска.

– Моё выступление – на тему «Жизнь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глазами русской семьи», – сообщила конкурсантка Александра Ковалёва, учащаяся на 2 курсе по направлению «Востоковедение и африканистика». – Участие в таких конкурсах даёт хороший опыт, позволяет совершенствовать знания языка.

Призовые места среди школьников распределены следующим образом:

- 3 место разделили Кирилл Елкин (Восточная гимназия) и Элеонора Ким («Дом детского творчества» г. Долинск)
- 2 место: Хван Альбина – (Гимназия 2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 1 место: Ли Ан На – (Гимназия 2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реди студентов и старшеклассников лучшими стали:

- 3 место: Воробьева Дарья – 2 курс, институт филологии, истории и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СахГУ
- 2 место: Цзю Константин – 9 класс, (МАОУ СОШ №9)
- 1 место – Нарынская Анна Антоновна - 2 курс, институт филологии, истории и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СахГУ

Как рассказала директор Института филологии, истории и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Эльвира Лим, конкурс вошёл в цикл декабрьских мероприятий, приуроченных к 30-летию начала профильной подготовки специалистов по корейскому языку в СахГУ.

Так, помимо конкурса, состоится круглый стол, на который приглашены все партнёры корейского отделения, которые оказывали поддержку на протяжении многих лет. 10 декабря состоится студенческий круглый стол, а 17 декабря – фестиваль корейской популярной музыки, которым закроется цикл юбилей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 Наши преподаватели успешно защищают кандидатские диссертации и повышают свой уровень. Ежегодно конкурс поступления на направления, связанные с изучением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достаточно высокий. К нам на протяжении пяти лет приезжают изучать корейский язык ребята из других регионов РФ, именно потому, что в нашем университете есть множество международных программ, стажировок, – подвела итоги Эльвира Лим.

(сайт СахГУ)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Тел.: 50-00-50; 43-31-31

Реклама

Группа BTS завершила гастролы в Лос-Анджелесе

Звёзды К-поп – участники мужской группы BTS – вернулись 6 декабря на родину из Лос-Анджелеса, где они получили высшую музыкальную награду США и провели четыре успешных концерта. Группа вписала почётную страницу в историю К-поп, став первой азиатской группой, которая за свою песню Butter получила высшую награду American Music Awards (AMA) – Артист года. Южнокорейские исполнители смогли обойти в борьбе за награду таких мировых звёзд как Ариана Гранде, Дрейк, Оливия Родриго, Тейлор Свифт и The Weeknd. По данным американского музыкального журнала Billboard, на четыре концерта, которые прошли на стадионе SoFi в Лос-Анджелесе с 27 ноября по 2 декабря, было продано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214 тыс. билетов. Исполнители заработали 33 млн 300 тыс. долларов. Это самая большая выручка от концертов с 2012 года, когда британская рок-группа Pink Floyd's Roger Waters заработала 38 млн долларов за девять выступлений в Буэнос-Айресе. 4 декабря группа получила награду американского издания Variety за свою песню Butter в категории «Запись года». Участники BTS в видеообращении поблагодарили Variety за оказанную им честь, подчеркнув, что награда занимает особое место в их сердцах. Они подчеркнули, что в нынешние нестабильные и неспокойные времена, связанные с пандемией коронавируса, они решили выпустить песню Butter в надежде поднять настроение людям.

KBS World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Токио продолжит требовать от Сеула «адекватных мер» в связи с историческим спором

Японск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будет продолжать настоятельно требовать от РК принятия «адекватных мер» для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дипломатического противостояния из-за общей истории. Об этом заявил премьер-министр Японии Фумио Кисида, выступая 6 декабря в парламенте. Назвав РК «важным соседом», он дал понять, что Токио сохранит свою нынешнюю позицию в двусторонних спорах по таким вопросам как компенсация жертвам принудительного труда и сексуальное порабощение корейцев. Говоря о Северной Корее, Кисида подчеркнул первоочередную важность решения проблемы японских граждан, похищенных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им режимом несколько десятилетий назад. Он напомнил, что готов встретиться с лидером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Ким Чен Ыном без каких-либо предварительных условий.

Банк Кореи: В 2022 году мировая экономика продолжит восстановление

В 2022 году мировая экономика продолжит восстановление, несмотря на неопределённость, связанную с вариантом коронавируса Омикрон, нарушения в глобальной цепочке поставок, замедление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оста в Китае и повышение ставок Федеральной резервной системы США. Об этом говорится в докладе о внешнеэкономических условиях, опубликованном 5 декабря Банком Кореи. В нём отмечается, что дальнейшее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 пандемии коронавируса предсказать невозможно, но с появлением новых препаратов для лечения инфекции,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м вакцинации и ревакцинации антивирусные меры будут ослабевать. Узкие места в глобальных цепочках поставок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будут устранены, поскольку рост цен на сырьё и логистический кризис должны прекратиться. По оценке Банка Кореи, мировая экономика будет успешно справляться с шоком, вызванным пандемией, и, вероятно, сохранит свой импульс.

В РК началась акция «Градусник любви к ближним 2022»

Общественная благотворитель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Саранэ ёльмэ» (Плоды любви) запустила ежегодную новогоднюю благотворительную акцию по сбору средств «Градусник любви к ближним 2022». Торжественная церемония акции начала состоялась 1 декабря в Сеуле на площади перед столичной мэрией. В мероприятии приняла участие супруга президента Ким Чон Сук, которая является почётным председателем «Саранэ ёльмэ». Акция будет проходить в 17 городах и регионах страны в течение 62 дней до 31 января следующего года. В этом году организаторы надеются собрать пожертвования на сумму 370 млрд вон (314 млн долларов). На площади установлен огромный градусник, который отображает собранную сумму. Как только удаётся собрать 1% от намеченной суммы «температура» повышается на 1 градус. Все собранные средства будут направлены на содействие восстановлению от COVID-19, помощь семьям, оказавшимся в кризисной ситуации, поддержку социально незащищённых слоёв населения и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е программы.

Южнокорейский фильм покажут в Китае впервые за 6 лет

Впервые за шесть лет в кинопрокат Китая выйдет южнокорейский фильм. Это картина «О! Мун Хи» режиссёра Чон Сэ Гё. 30 ноября она была одобрена к показу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м комитетом кинематографии КНР. Действие комедийного фильма происходит в корейской деревне и строится вокруг расследования одного происшествия. В главных ролях снялись актёры На Мун Хи и Ли Хи Чжу.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фильм вышел в прокат в сентябре прошлого года и собрал 350 тыс. зрителей.

В последний раз отечественный фильм выходил в кинопрокат Китая в сентябре 2015 года. После размещения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американских противоракетных систем THAAD в 2016 году Китай ограничил доступ к своему рынку для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культурного контента, включая игры, кино, сериалы, популярную музыку. При этом правительство Китая не выпускало официальных постановлений по этому поводу: ограничения накладывались путём отклонения запросов на выдачу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разрешений. В октябре 2017 года после переговоров на уровне глав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их ведомств наметились предпосылки к отмене санкций, однако фактически южнокорейские фильмы ни разу за шесть лет не были одобрены к показу.

О потеплении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двумя странами свидетельствуют и другие перемены. Помимо выхода кинокартины «О! Мун Хи», для декабряского номера китайского журнала GQ снялся южнокорейский актёр Ли Дон Ук, а в декабре прошлого года разрешение на предоставление услуг в сфере мобильных игр было выдано южнокорейской компании. Остаётся надеяться, что постепенно Пекин начнёт снимать ограничения, тем более что в 2022 году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и Китай будут отмечать 30-летие установления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RKI)

Сеул из-за новой вспышки COVID отказался от "возвращения к нормальной жизни"

Новый "омикрон"-штамм коронавируса проник в Южную Корею и начал быстро распространяться. Это добавило поводов для беспокойства властей, которые на днях решили вновь начать ужесточение мер социального дистанцирования, фактически отказавшись от "возвращения к нормальной жизни".

Первый случай проникновения в Южную Корею "омикрон"-штамма был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 1 декабря, когда он был подтвержден у вернувшейся из Нигерии супружеской пары корейских священников. Еще 5 декабря число зараженных новым штаммом составляло 12 человек, тогда как на следующий день произошел скачок сразу в два раза, доведя общее число до 24.

Эксперты при этом опасаются, что число зараженных "омикроном" может резко увеличиться. Заражение было зафиксировано у нескольких студентов, включая иностранных, которые активно контактировали с друзьями и знакомыми.

Как это уже часто бывало в Корее, новая вспышка коронавируса произошла из-за обмана. Прибывшие из Нигерии корейские священники - муж и жена - при стандартном опросе о круге контактов солгали, сказав, что до дома они добирались на специальном такси, предназначенном для тех, кто прибыл из зарубежья и должен находиться на карантине. На самом деле пасторов по их просьбе подвез на своей машине проживающий в Корее гражданин Узбекистана.

То, что священнослужители солгали, не позволило быстро включить узбекистанца в круг потенциально зараженных, а потому он несколько дней жил обычной жизнью: общался с семьей, родственниками, друзьями, посещал церков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где участвовали сотни людей. Лишь после выявления у себя признаков коронавируса иностранец пошел проверяться, а заодно рассказал про то, что подвозил пасторов, от которых, как уже сейчас очевидно, он и заразился.

Власти РК намерены подать в суд, чтобы наказать супружескую пару за ложь, но сделанного не вернуть - "омикрон" уже гуляет по Корее. Как выяснилось, значительная часть зараженных иностранных студентов ведущих вузов Сеула также посетили собрания церкви, где был узбек. Кроме того, сейчас среди студентов и посетителей церкви есть большое количество людей с симптомами, характерными для COVID-19, но результаты их анализов станут известны завтра. Специалисты же считают, что значительный рост инфицированных новым штаммом коронавируса - вопрос ближайшего времени.

Все это наложило на наблюдаемый в последние дни заметный рост числа зараженных за сутки. На днях был установлен рекорд в более чем пять тысяч зара-

женных. При этом также высоко количество тяжелых больных, для которых требуются специальные палаты интенсивной терапии. Загрузка таких палат в столичном регионе составляет около 90 процентов, а по стране в целом подбирается к 80 процентам. Пошли вверх и показатели смертности.

Данная ситуация заставила власти Кореи пойти на фактический отказ от программы "возвращения к нормальной жизни", которая, согласно замыслу правительства, должна была вернуть страну в привычный "докоронавирусный режим". Стартовав буквально месяц назад - 1 ноября - "возвращение к нормальной жизни" в Корее обернулось рекордными цифрами зараженных, переполнением палат для тяжелых больных и ростом показателей смертности.

Несколько дней назад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К заявило о "временной приостановке" программы "возвращения", а вместо этого вновь начато ужесточение мер дистанцирования: сокращено разрешенное количество людей на частных встречах, вновь вернули обязательный для всех без исключения 10-дневный карантин по прилету из-за границы, авиакомпании одна за другой отложили возобновление полетов по популярным туристическим направлениям, отменяются фестивали, концерты. Кроме того, власти РК ужесточают подход к вакцинированию. Новые меры направлены на то, чтобы подтолкнуть всех к прививкам, хотя, стоит признать, корейцы, по сравнению со многими другими странами, вакцинируются очень активно.

Вся эта ситуация в Южной Корее заставляет задуматься всех нас о том, как выстраивать стратегию поведения в дальнейшем. Корея - одна из самых образцовых стран мира по части соблюдения мер социального дистанцирования, разного рода ограничений. На улице, не говоря уже о закрытых помещениях, нельзя увидеть человека без маски, доля вакцинированных среди тех, кто имеет эту возможность сделать, превысила 90 процентов. Когда правительство просило соблюдать какие-либо ограничения, включая отказ от посиделок с друзьями, то корейцы действительно с пониманием относились к этому и прекращали встречаться и ходить по ресторанам. Сознательные нарушители правил в Корее, конечно, тоже есть, но их единицы, а в подавляющем своем большинстве корейцы, как уже было сказано, очень примерно соблюдают предписания. Но получается, что даже такая образцовая по части борьбы с COVID-19 страна не потянула плавного возвращения к нормальной жизни и была вынуждена приостановить эту программу на неопределенное время, а кое в чем и вернула часть ограничений.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 РК)

«Игра в кальмара» номинирован на премию Critics' Choice Movie Awards

Южнокорейский сериал «Игра в кальмара» от Netflix номинирован на американскую кинопремию Critics' Choice Movie Awards, присуждаемую Ассоциацией кинокритиков вещательных компаний. Работа режиссёра Хван Дон Хёка претендует на победу в трёх номинациях: «лучший драматический сериал», «лучший сериал на иностранном языке», «лучшая мужская роль».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церемония вручения премии Critics' Choice Movie Awards является одним из важнейших событий в сфере киноиндустрии. В этом году «Игра в кальмара» стал единственным сериалом из стран Азии, номинированным на Critics' Choice Movie Awards. Церемония награждения победителей состоится 9 января 2022 года.

Сценарий к фильму «Паразиты» вошёл в список лучших работ XXI века

Гильдия сценаристов США (WGA) включила сценарий к фильму «Паразиты» в число лучших работ XXI века. Всего в список вошёл 101 фильм, вышедший на экраны кинотеатров с января 2001 года. Сценарий к фильму «Паразиты», написанный совместно сценаристом Хан Чжин Воном и режиссёром Пон Чжун Хо, занял четвёртое место. Ранее он был удостоен премии «Оскар» за «Лучший оригинальный сценарий». Первое место по версии WGA занял американский фильм ужасов «Прочь» (Get Out) режиссёра Джордана Пила. Премьера данной кинокартины состоялась в 2017 году. На момент выхода она привлекла большое внимание. Её посмотрели более 2 млн человек.

KBS World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1-е полугодие 2022 года.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е полугодие — **557 руб. 04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лигранд"

**Партнер,
созданный для Вас!**

Тел.: 42-49-54,

42-49-89

На Сахалине начал работать новый рыболовный завод

С выходом на проектную мощность предприятие в Невельском районе сможет воспроизводить до 27 миллионов мальков тихоокеанских лососей в год. В этом году заложили на инкубацию первые 2,5 миллиона икринок кеты. Благодаря запуску производства создано 10 рабочих мест.

– Рыбопромышленный комплекс – важнейшая отрасль для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Наука доказывает, что деятельность рыболовных заводов положительно сказывается на популяции лососей. Мы стремимся создавать привлекательные условия для инвесторов, для запуска новых предприятий. Все для того, чтобы сахалинцы и курильчане могли покупать рыбу по приемлемым ценам, – отмети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Новый рыболовный завод расположен на юго-западном побережье Сахалина, на реке Оненуси, в Невельском районе. Это инвестиционный проект рыбопромышленной компании «Каниф». Общий объем вложений оценивается в 150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Строительство будет полностью завершено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Сейчас введены две очереди. Современный завод оборудован почти сотней высокоэффективных инкубаторов типа «Бокс» и «Аткинс», мощность которых позволит разместить и обеспечить выклев до 45 миллионов икринок.

Питомник завода площадью 2000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обеспечит содержание 30 миллионов личинок в период выдерживания. Для постепенной адаптации мальков на территории завода также обустроен пруд, рабочий объем которого составляет 350 кубометров. Суммарная емкость питомника и пруда позволит получить 27 миллионов штук молоди кеты в год.

Чтобы обеспечить бесперебойную работу предприятия, построили линию электропередачи и установили резервный генератор.

– Строительство завода осложнялось непростой логистикой. Он находится в труднодоступной местности. Также столкнулись со сбоями поставок в условиях пандемии. Но, мы уверены, что все было не зря, и завод даст ожидаемый результат, – сказал заместитель директора ООО «Каниф» по рыболовству Виктор Погодин.

В 2022 году планируется ввести в эксплуатацию третью очередь завода. Будут обустроены самотечный технический водовод и ограждение, выполнено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о территории.

– Аквакультурой, в том числе искусственным воспроизводством тихоокеанских лососей,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егодня занимаются 68 лососевых рыболовных предприятий, – рассказал руководитель агентства по рыболовству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ван Радченко. – Ежегодно эти заводы выращивают и выпускают в нерестовые реки региона около 1 миллиарда штук молоди тихоокеанских лососей.

Рыболовные заводы обеспечивают стабильные подходы кеты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Преимущественно вся вылавливаемая кета имеет искусственное происхождение.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укрепляет продовольственную безопасность

В селе Троицкое Анивского района в тестовом режиме заработал современный завод по переработке молока компании «Грин Агро-Сахалин». Новое производство входит в состав территории опережающего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Южная».

–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живет в условиях сложной транспортной схемы. Вопрос продовольствен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имеет для региона особое значение. Мы заинтересованы в том, чтобы как можно больше продуктов питания производилось на территории области и реализовывалось по доступной цене. С этой целью системно поддерживаем как небольшие фермерские хозяйства, так и крупные предприятия агропромышленного комплекса. В результате потребность в овощах, картофеле, яйце курином почти полностью закрывается за счет местн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Показатель самообеспеченности мясом за три года вырос в 1,2 раза. Важно также, что от островного села мы получаем максимально свежую продукцию. А это положительно влияет на здоровье жителей области, – сказа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ысокими темпами растет и производство молока. В 2020 году показатель самообеспеченности составил 64,1 процента. Годом ранее – 56,4 процента. Прирост произошел в основном за счет реализации крупного инвестиционного проекта на юге Сахалина. В селе Троицком при поддержк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егиона и «Корпорации развит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оздан животноводческий комплекс «Грин Агро-Сахалин». Дойное стадо – 1628 голов. Здешние буренки дают пятую часть сырого молока всего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Валовое суточное производство составляет 33-34 тонны. В дальнейшем объемы будут расти.

Сегодня основная часть сырого молока от «Грин Агро-Сахалин» перерабатывается на предприятиях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Холмске и Поронайске. Но вскоре ситуация изменится. Недавно на ферме в тестовом режиме заработал собственный молокозавод. Сегодня он выпускает пастеризованное молоко и кефир в тетрапаке, сметану в пластиковых стаканчиках.

– Качество нашей продукции обеспечивается за счет нескольких факторов. Во-первых, мы используем максимально свежее сырье. Например, молоко утренней дойки сразу попадает по трубам на молокозавод, проходит пастеризацию, разливается в упаковку и уже следующим

утром попадает в магазины. Во-вторых, работа завода максимально автоматизирована. В результате четко соблюдается технология. В-третьих, контакт сырья и продукции с окружающей средой сведен к минимуму. С момента дойки и до розлива в товарную упаковку продукт находится исключительно в стерильных емкостях и трубах. Он не соприкасается с людьми и даже с атмосферным воздухом, – рассказала руководитель молокозавода Анна Арабская.

– Скоро начнем выпускать йогурты с различными наполнителями. В сырном цеху будем изготавливать твердые и полутвердые сыры. Начнем с «Российского» и «Голландского». В декабре заложим на созревание первую партию. Пробу можно будет снять уже в январе следующего года. Когда отработаем технологию, будем расширять ассортимент, прибавим до 15 наименований сыров, – сказал управляющий директор «Грин Агро-Сахалин» Владимир Балухта.

С запуском молокозавода на полную мощность будет создано 145 новых рабочих мест.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готовятся к Новому году

По поручению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в городах и селах украшают общественные пространства и устраивают праздничные площадки, учреждения культуры готовят новогодние представления.

– Невозможно не заметить, что в ряде городов уже активно начали украшать пространство праздничной иллюминацией. Новогодние праздники начнутся совсем скоро и важно создать у людей хорошее, доброе настроение. Призываю руководителей всех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й обратить на это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и выполнить необходимую работу в кратчайшие сроки, – подчеркну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Ярче остальных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традиционно украшают областной центр. Так, новогодней иллюминацией уже полностью оформлен городской парк. В зимнем режиме работает музыкальный фонтан, готовится к запуску светомузыкальный тоннель. Жителей и гостей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здесь ждут за новогодним настроением.

Продолжаются работы на площади Ленина. Установлена елка и иллюминация на фонтанах, идет оформление новогоднего городка. Ледовые скульптуры с подсветкой, а также горка будут подготовлены к концу декабря.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новогодняя иллюминация будет включена на центральных улицах.

Новогодняя кампания в учреждениях культуры стартует уже с 16 декабря. Литературно-художественный музей книги А. П. Чехова «Остров Сахалин» ждет гостей на утренник «Новый год по-чеховски», а также интерактивные занятия и мастер-классы: «Рождественская ель», «Елочка-иглолка», «Секрет новогодней игрушки», «Чехов и зима».

Сахалинский театр кукол покажет сказку о настоящей дружбе, любви и волшебных превращениях с участием Деда Мороза, а также музыкальную историю о жизни трех поросят и волка.

Сахалинский Международный театральный центр им. А.П. Чехова готовит новогодний спектакль – новую версию советской сказки, известной по экранизации 1975 года, адаптированную под интересы и увлечения нынешних детей. Юных зрителей ждут потрясающие спецэффекты, современная музыка и хореография.

А Сахалинский областной центр народного творчества в дни новогодних каникул проведет для юных островитян рождественскую елку. Гости ждут интерактивные игры и другие сюрпризы.

С расписанием мероприятий можно ознакомиться на сайтах учреждений культуры.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входит в тройку регионов России по количеству газовых авто в расчете на численность жителей

Благодаря системным мерам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оддержки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вышел на 7 место в РФ по доле газомоторных машин от общего числа автомобилей, и этот показатель продолжает повышаться. Вопрос развития экологически чистых видов транспорта подня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на заседании област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 Выхлопные газы бензиновых автомобилей – один из основных факторов загрязнения воздуха. Чистота воздуха во многом оказывает влияние на здоровье людей. Поэтому мы делаем ставку на газомоторный и электротранспорт. Он не только экологически чистый, но и более экономичный для автовладельцев. Чтобы дополнительно мотивировать сахалинцев к переоборудованию своих машин, мы предоставляем меры поддержки, развиваем инфраструктуру,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 островной области на метане сегодня работают 2283 авто, еще около 100 планируется перевести на экологически чистое топливо до конца декабря. В прошлом году на Сахалине была 1421 машина на газомоторном топливе, а пять лет назад – всего 64.

Таких результатов удалось достичь благодаря мерам поддержки, которые действуют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Сахалинцам компенсируют затраты на переоборудование своих машин – до 150 тысяч рублей. Возмещается часть первоначального взноса по автокредитам на газомоторный транспорт. Для владельцев экологически чистых авто транспортный налог снижен в два раза.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меры поддержки действуют для бизнеса. Предприятиям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и пищев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компенсируют 70-90 процентов затрат на покупку и переоборудование техники. Действует пониженная ставка по автолизингу – до 5 процентов.

Объемы продаж метана в этом году увеличились на 42 процента. На сегодня реализовано почти 5 миллионов кубометров газомоторного топлива.

– В регионе действуют три автомобильных газонаполнительных компрессорных станции: две АГНКС «Газпром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и одна – производственно-строительной компании «Сахалин» в Дальнем используется для передвижных заправщиков. Идет строительство АГНКС в Анивском районе, – рассказал министр энергетик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Михаил Гузенко.

Помимо того, работают 6 ПАГЗ – передвижных автомобильных газовых заправщиков. Они обслуживают владельцев экологичного транспорта в Невельске, Корсакове, Холмске, Долинске, Поронайске, Тымовском. Еще один заправщик приобретен для Анивы.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ПАГЗ должны появиться в Ногликах, Макарове, в 2022-2023 годах – в Охе.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оздаются максимально комфортные условия для инвесторов, которые развивают газозаправочную инфраструктуру. Земля под АГНКС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без торгов. Компенсируется 50 процентов расходов на приобретение передвижных заправщиков. Возмещаются затраты на покупку оборудования для сервисных автоцентров.

Отметим, что по поручению губернатора ведутся переговоры с Газпромом по организации перевозок грузов с проектов Сахалин – 1, 2, 3 тягачами на СПГ. Прорабатывается меморандум с «Сахалин Энерджи» о преимущественном использовании экологичных видов транспорта.

Сахалинские студенты-программисты разработают новые сервисы для приложения «Острова.65»

Сегодня обладатели карты сахалинца через мобильное приложение могут узнать о скидках на товары и социальные услуги, о мерах социальной поддержки. Однако уже в ближайшем будущем возможности карты и мобильного приложения существенно расширятся. Начинающие программисты озвучили свои идеи сервисов, которые запустят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Мозговой штурм состоялся сегодня в рамках открытия хакатона – форума для разработчиков.

– По инициативе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было разработано мобильное приложение «Острова.65», чтобы людям было удобно пользоваться через смартфон картой сахалинца и одновременно другими полезными сервисами. Мы намерены расширять возможности приложения. Для начинающих программистов это хороший опыт, возможность запустить свой стартап и построить карьеру в передовой отрасли, – отметил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ячеслав Аленков.

В Точке кипения Сахалин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соревновались студенты выпускных курсов островных техникумов и колледжей. Разбившись на команды, в течение 20 минут начинающие айтишники придумывали идеи для новых сервисов.

– С помощью приложения можно, к примеру, формировать группы волонтеров для поиска пропавших людей, а также туристические группы и вместе ходить в походы. Для людей удобным был бы сервис, через который можно отслеживать график отключения воды и электричества в своем доме, – рассказал студент 4 курса отделения прикладной математики и информатики политехнического колледжа СахГУ Виктор Беспалов.

Из множества предложений отобрали 10 – по одному от каждой команды. В ходе голосования определили лучшие идеи, реализация которых будет востребована сахалинцами и курильчанами. Среди них сервисы для доступа в помещение с помощью NFC-технологий, заменяющих чип от домофона, для формирования туристических групп, отслеживания передвижений школьников и другие. Идеи, которые не стали победителями голосования, также возьмут в разработку.

– Молодые и талантливые программисты сегодня очень востребованы на предприятиях совершенно разных сфер. Чтобы стать настоящими профессионалами своего дела, нужно постоянно учиться и совершенствовать свои навыки. Трех победителям хакатона мы подарим возможность получить дополнительное образование по выбранной специальности на ведущих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платформах, – отметил Владимир Комлев, генеральный директор платежной системы «Мир», на базе которой выпускается карта сахалинца.

Она представляет собой не только платежный инструмент, но и заменяет отдельные документы и проездные билеты, дает возможность получать кешбэк и скидки до 25 процентов от партнеров проекта, которых сегодня насчитывается более тысячи. Это магазины, салоны красоты, медицинские клиники, аптеки, кафе, туроператоры, автомойки, частные детские сады, местные творческие производители, учреждения культуры и спорта. В новом горнолыжном сезоне обладатели карты сахалинца смогут получать скидки на покупку и прокат спортивного снаряжения, обучение зимним видам спорта, а также на разовые подъемы и ски-пассы.

На сегодня держателями пластика являются свыше 50 тысяч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еще 11 тысяч заявлений на выдачу карт находятся в работе. По поручению губернатора ведется системная работа по привлечению новых партнеров, которые будут давать обладателям карты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скидки и возможности.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сахалинских поликлиниках по поручению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сокращают время ожидания приема

К формированию расписания работы специалистов в поликлиниках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начали применять новый подход. Синхронизация данных по занятости специалистов с листом ожидания пациентов позволяет быстрее закрыть потребности в плановой медицинской помощи. Инициатива реализуется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Забота. Защита. Уважение».

Команда, в которую вошл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областного минздрава, главные врачи, юристы, сотрудники кадровых служб, экономисты, IT-специалисты, проанализировала организацию приемов по всем поликлиникам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На основе мониторинга составили карту, учитывающую доступность и дефицит каждого специалиста. Параллельно запущен телефонный опрос пациентов по удовлетворенности качеством оказанной медицинской помощи.

– В обращениях граждан мы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фиксируем проблемы с доступностью медицинской помощи в амбулаторном звене. Наша цель – обеспечить пациентам стопроцентную доступность медицинской помощи по заданным критериям. Для плановой помощи, оказываемой врачами-терапевтами и педиатрами, доступность должна быть обеспечена в течение 2 дней, узкими специалистами – в течение 7 дней, – рассказал заместитель министра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танислав Алтухов.

В результате работы проектного офиса систематизировано и стандартизировано расписание всех поликлиник города. Благодаря такой работе прирост слотов для записи увеличился с 5 тысяч до 8 тысяч в неделю без дополнительной нагрузки на врачей.

– Проект помог выявить проблему в нашей поликлинике. При формировании листа ожидания сначала нужно было понять, с чем связана проблема, и оперативно её устранить. Всем людям, которые были внесены в лист ожидания,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будет оказана медицинская помощь. Такие организационные методы будут обеспечивать доступность помощи пациентам на более высоком уровне, – пояснил, исполняющий обязанности главного врача поликлиники №2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Алексей Шишкин.

Основная проблема, которую решали специалисты проектного офиса в поликлинике №2 – очередь на УЗИ-диагностику. В листе ожидания находилось 176 человек. Для решения проблемы проработали маршрутизацию – часть пациентов направили на «свободные окна» в другие медучреждения, также был привлечен дополнительный специалист, который помог разгрузить расписание.

Проблематика по листам ожидания помогла сформировать анализ потребности в врачах узкого профиля, которые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будут привлекаться специалистами по рекрутингу. Сейчас проект реализуется в городских поликлиниках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и уже, по отзывам пациентов и проведенному анализу, успел себя хорошо зарекомендовать. В дальнейшем опыт будет применен во всех медицинских учреждениях региона.

На Сахалине начал работать новый рыболовный завод

С выходом на проектную мощность предприятие в Невельском районе сможет воспроизводить до 27 миллионов мальков тихоокеанских лососей в год. В этом году заложили на инкубацию первые 2,5 миллиона икринок кеты. Благодаря запуску производства создано 10 рабочих мест.

– Рыбопромышленный комплекс – важнейшая отрасль для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Наука доказывает, что деятельность рыболовных заводов положительно сказывается на популяции лососей. Мы стремимся создавать привлекательные условия для инвесторов, для запуска новых предприятий. Все для того, чтобы сахалинцы и курильчане могли покупать рыбу по приемлемым ценам, – отмети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Новый рыболовный завод расположен на юго-западном побережье Сахалина, на реке Оненуси, в Невельском районе. Это инвестиционный проект рыбопромышленной компании «Каниф». Общий объем вложенный оценивается в 150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Строительство будет полностью завершено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Сейчас введены две очереди. Современный завод оборудован почти сотней высокоэффективных инкубаторов типа «Бокс» и «Аткинс», мощность которых позволит разместить и обеспечить выклев до 45 миллионов икринок.

Питомник завода площадью 2000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обеспечит содержание 30 миллионов личинок в период выдерживания. Для постепенной адаптации мальков на территории завода также обустроены пруд, рабочий объем которого составляет 350 кубометров. Суммарная емкость питомника и пруда позволит получить 27 миллионов штук молоди кеты в год.

Чтобы обеспечить бесперебойную работу предприятия, построили линию электропередачи и установили резервный генератор.

– Строительство завода осложнялось непростой логистикой. Он находится в труднодоступной местности. Также столкнулись со сбоями поставок в условиях пандемии. Но, мы уверены, что все было не зря, и завод даст ожидаемый результат, – сказал заместитель директора ООО «Каниф» по рыболовству Виктор Погодин.

В 2022 году планируется ввести в эксплуатацию третью очередь завода. Будут обустроены самотечный технический водовод и ограждение, выполнено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о территории.

– Аквакультурой, в том числе искусственным воспроизводством тихоокеанских лососей,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егодня занимаются 68 лососевых рыболовных предприятий, – рассказал руководитель агентства по рыболовству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ван Радченко. – Ежегодно эти заводы выращивают и выпускают в нерестовые реки региона около 1 миллиарда штук молоди тихоокеанских лососей.

Рыболовные заводы обеспечивают стабильные подходы кеты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Преимущественно вся вылавливаемая кета имеет искусственное происхождение.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제9회 중앙아시아 한국학 학술대회' 비슈케크서 열려

'온라인 강의 시대 중앙아시아 한국학 교원 양성 및 재교육' 주제 키르기즈, 카자흐, 우즈벡 등 5개국서 한국학 관계자 100여명 온·오프라인 참가

'제9회 중앙아시아 한국학 학술대회'가 '온라인 강의 시대 중앙아시아 한국학 교원 양성 및 재교육'을 주제로 지난 12월 2일부터 4일까지 키르기즈스탄 하얏트 리젠시 비슈케크에서 열렸다.

중앙아시아 한국학교수협회의가 주최하고 중앙아시아 한국대 한국학센터와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한국학센터가 주관, 한국국제교류재단이 후원한 이번 학술대회에는 키르기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한국 등 5개국 20개 도시 48개 대학 및 기관에서 한국학 관계자 100여명과 일반인 청중 40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가했다.

개회식은 백태현 중앙아시아 한국학교수협의회 명예회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이원재 주키르기즈공화국대사, 방문단을 이끌고 일시 귀국한 케멜로바 디나라 주한키르기즈공화국 대사, 한국학을 전공한 나디르베코프 소우즈베키스탄 문화정보포츠청년정책부 차관, 이스마일로프 박티베크 키르기즈공화국 교육과학부 장관 고문, 임철우 한국국제교류재단 모스크바사무소장, 세리쿨로바 미나라 중앙아시아 한국대 총장이 차례로 축사한 후 본격적인 학술대회가 시작됐다.

먼저 임철우 한국국제교류재단 모스크바사무소장이 한국국제교류재단 사업 소개 후, 이병조 카자흐국립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제9회 중앙아시아 한국학 학술대회'가 지난 12월 2일부터 4일까지 키르기즈스탄 하얏트 리젠시 비슈케크에서 열렸다. (사진 중앙아시아 한국학교수협의회)

주제발표에서는 백태현 중앙아시아 한국대 교수가 '중앙아시아 특성에 맞춘 한국학 교원 양성 방안과 그 문제점', 박영지 고려대 교수가 '중앙아시아지역의 현지 한국어 교원 양성', 장호중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교수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뉴노멀로서의 중앙아시아 한국학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분과발표에서는 14편의 논문발표가 있었고, 이후 학문후속세대 논문 4편이 발표됐다.

학술대회 참석자들은 코로나 19 이후 온라인 강의가 확대된 상황에서 각 대학 한국학 교원의 현황과 문제점을 논의하는 한편, 향후 교원을 양성하고 재교육하는데 있어서 중앙아시아 한국학 대학들의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된 집중토론 시간 참

석자들은 중앙아시아 실정에 맞는 한국어 및 한국학 교재가 부족하고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원을 찾기 어려우며 졸업자들의 취업이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한편, 중앙아시아 한국학교수협의회는 학술대회를 마친 후 노보텔 비슈케크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정기총회를 통해 차년도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는 우즈베키스탄의 타슈켄트 국립동방대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했다. 또한 내년엔 중앙아시아 한국학학술대회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기존의 언어, 문학, 역사 등의 분야 외에도 정치외교, 경제 등으로 외연을 확대하는 동시에 내실을 다지는 학술대회를 준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출처: 재외동포신문)

GKL, 사할린 동포에 역사 탐방 '여행테라피' 지원

조국 광복 때 귀환하지 못한 사할린 동포 260명이 지난 27일부터 순차적으로 영주입국하고 있는 가운데, 그랜드코리아레저(GKL)과 GKL사회공헌재단이 이들 동포의 국내역사여행을 지원하며 정착을 돕기로 했다.

GKL은 이미 지난 1~3일 국내에 체류 중인 사할린동포들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여행 테라피'를 진행하는 등 한민족 동포들을 대상으로 한 적응·힐링 기회를 지원한데 이어, 최근 귀환한 동포들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정착 절차가 어느 정도 진행되는 시점에 이 프로그램에 합류시키기로 했다.

통상 '대한민국 여행 테라피'는 2박3일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벌써 전국 5개권역에 500여 명의 동포들이 함께하고 있다.

이미 여행테라피를 마친 사할린 가족들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공주 마곡사-무령왕릉, 부여 궁남지-익산 성당포구마을을 방문했다.

공주, 부여, 익산 외에, 경기권(양평), 강원권(강릉, 인제), 전라권(목포, 나주), 경상권(경주, 울산)등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문화 역사 탐방, 농촌 체험 테마 등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다.



사할린 등 동포를 위한 대한민국 여행 테라피 충청권편.

GKL은 편하게 많은 동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안산, 인천, 안성, 광주, 경주, 아산, 천안 등에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 가정과 사할린 가정을 모집,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테라피 여행을 진행 중이다.

이덕형 이사장은 "이번 대한민국 여행 테라피를 통해 우리 동포들의 가슴 아팠던 과거 역사의 상처가 조금이나마 치유될 수 있기를 바란다면,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헤럴드경제)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Большой пирог и танцы порадовали гостей в день рождения сахалинского зоопарка

В минувшее воскресенье островной зоопарк собрал на свой 28-й день рождения самых преданных друзей — всего более 600 человек. Для гостей была подготовлена интересная программа. С самого утра маленькие участники отправились на поиски приключений в командной игре "Планета обезьян". В это же время стартовал прием билетов для розыгрыша призов.

Взрыв ярких эмоций вызвали персонажи из любимой игры Амонг Ас. Вместе с многочисленной публикой они вспомнили мелодии известных хитов и исполнили яркие танцевальные номера, которые стали флешмобами.

Кульминацией праздника стал розыгрыш призов. Самые удачливые уехали из зоопарка на тюбингах и аргамаке, выиграли сертификаты в различные центры семейного досуга, спортивные магазины, аквапарк. Тридцать гостей получили в подарок абонементы в зоопарк, билеты в театр кукол и кинотеатры.

Завершилось празднование традиционным чаепитием с вкусным пирогом, сообщает сахалинский зоопарк.

Сахалин чেস 선수들 '마법의 룩' 축제에 참가

유즈노сахалин스크에서 '마법의 룩' 아동 체스 축제가 시작

되었다. 제일 먼저 가장 어린 아마추어 선수들이 체스판에 앉아 여왕을 향해 피스를 움직이고, 적을 향해 장군을 앞세운다. 이것이 '초보 경기'의 우승자를 결정한다.

2016년에 개최된 첫 축제에서 경기 참가자들은 열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였는데 현재 '초보 경기'에는 100명 이하가 참가하고 있다.

축제 주최 측은 참가자들을 2012년생 이상과 2013년생 이하 두 그룹의 연령대로 나누었다. 연령 2013년생 이하 그룹에서는 51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스위스 시스템을 따라 9라운드를 치렀는데 경기 시간은 15분으로 말을 움직이는 시간은 각각 10초다.

우승자는 8점을 얻은 김 블라디슬라브가이 차지, 2등은 우승자보다 1점이 적은 이완 네스제로브, 블라디슬라브 팔라마르추크, 김 다닐이 차지했다.

여아들 중에서는 멜리사 드워르쑈와(6점), 마리아나 류바르스카야(4.5점), 예카제리나 레온티체와 (4점)으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연령 2012년생 이상은 총 48명이 참가한 가운데 상위 3명은 이완 조모브(8.5점), 아르쑴 키리코브(7점), 와짐 프로코피예브 (6.5점)이었다.

여아 경기에서는 예카제리나 말리쉬(6점), 알리사 구세와(5점), 약탄굴 에밀베코와(4.5점)가 우수한 점수를 따다.

오는 주말 체스 축제에서는 '도전자 경기', '선수권 경기', '수퍼 리그 경기'가 펼쳐질 예정이라고 주 스포츠부가 전했다.

Сахалинские шахматисты участвуют в фестивале "Волшебная ладь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начался детский шахматный фестиваль "Волшебная ладья". Сначала за доски сели самые юные любители проводить пешку в ферзя и ставить сопернику мат. Они определили победителей "Турнира новичков".

В первом фестивале, который состоялся в 2016 году, претендентов на награды можно было пересчитать по пальцам двух рук, а сейчас в "Турнире новичков" собралась без малого сотня участников. Организаторы разделили их на две возрастные группы (2012 г. р. и старше, 2013 г. р. и младше).

В младшей возрастной группе был заявлен 51 участник. Они сыграли 9 туров по швейцарской системе. Контроль времени 15 минут на партию + 10 секунд за каждый ход.

Победителем стал Владислав Ким, который набрал 8 очков. На 1 очко от победителя отстали Иван Нестеров, Владислав Паламарчук и Даниил Ким.

Лучших результатов среди девочек добились Меллиса Дворцова (6 очков), Марьяна Любарская (4,5) и Екатерина Леонтичева (4).

В старшей возрастной группе (48 шахматистов) тройку лидеров составили Иван Жомов (8,5 очков), Артем Кириков (7), Вадим Прокопьев (6,5).

У девочек отличились Екатерина Малыш (6), Алиса Гусева (5), Актангул Эмилбекова (4,5).

В ближайшие выходные фестиваль продолжится "Турниром претендентов", "Турниром чемпионов" и суперлигой,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областного минспорта. (Сахалин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Ваш сервис для заказа вкусной еды

Наши преимущества:

- У нас большой выбор заведений
- Удобная разбивка по категориям
- Популярные блюда



- Информация о скидках и акциях в заведениях
- Понравившийся заказ легко повторить
- Сортировка заведений по отзывам и рейтингу



91 ЗАВЕДЕНИЕ



684 200 ЗАКАЗОВ



105 800 ПОЛЬЗОВАТЕЛЕЙ



28 075 ОТЗЫВО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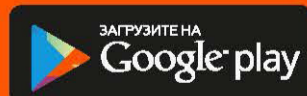
Вы можете заказывать



на сайте eda.sakh.com



в приложении eda.sakh.com



Реклама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사장(주필) 배 워토리아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6-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3-0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3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